

상춘곡(정극인)

1. 해석

紅塵(홍진)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(생애) 엇더흔고. 넷 사
람 風流(풍류)랄 미출가 못 미출가.

속세에 묻혀 사는 분네들아,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? 옛 사
람의 멋진 취향을 따르는지 못 따를런지?

天地間(천지간) 男子(남자)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,
山林(산림)에 못쳐 이셔 至樂(지락)을 얻을 것가.
세상에 나와 같이 풍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마는 나처
럼 자연에 묻혀 지극한 낙을 누릴 줄 모르는 것일까?

數間茅屋(수간 모옥)을 碧溪水(벽계수) 앞찍 두고, 松竹
(송죽) 鬱鬱裏(울울리)에 風月主人(풍월 주인) 되여서
라.

두어 간 되는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, 송죽이 울창하게
우거진 속에서 대자연의 주인이 되었다.

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, 桃花杏花(도화 행
화)는 夕陽裏(석양리)에 뛰여 있고,
엇그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돌아오니, 복숭아꽃과 살구꽃은
저녁놀 속에 피어 있고,

綠楊芳草(녹양 방초)는 細雨中(세우중)에 프르도다. 칼
로 몰아 낸가, 붓으로 그려 낸가,
푸른 버드나무와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. 이 봄 경치는 칼로
재단해 내었는가,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?

造化神功(조화 신공)이 物物(물물)마다 현스롭다.

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삼라만상에 아단스럽게 드러났다.

수풀에 우난 새난 춘기(春氣)랄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
態(교태)로다.

수풀 속에 우는 새는 춘흥을 못내 이겨 소리마다 아양
을 부리는 듯하구나.

物我一體(물아 일체)어니, 興(흥)이이 다를소냐.

자연에 몰입되어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(저 새들의 흥과 나의) 흥
이 다르겠는가?

柴扉(시비)에 거러 보고, 亭子(정자)에 안자 보니, 逍遙
吟詠(소요 음영)하야, 山日(산일)이 寂寂(적적)하디.

사람문 쪽으로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도 보고, 천천히 거
닐며 시를 읊어, 산 속의 나날이 고요한데,

閒中眞味(한중 진미)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.

한가한 생활 속의 참된 재미를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즐기는구나.

이바 니웃드라 산수(山水) 구경 가자스라 踏靑(踏青)으
란 오늘 하고 욱기(浴沂)란 내일(來日)하세.

이바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갑시다. 풀을 밟는 것은 오늘하고 냇가에
서 떡 감는 것은 내일하세.

아침에 채산(採山)하고 나조히 조수(釣水)하세 .

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.

곳 괴여 닉은 술을 갈건(葛巾)으로 땀타 노코 곳나모
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.

갓 괴여 익은 술을 베로 만든 두건으로 받쳐 놓고 꽃나무 가지 꺾으
며 수 놓고 먹으리라

화풍(和風)이 건듯 부러 녹수(綠水)를 건너오니 청향(淸
香)은 잔에 지고 낙홍(落紅)은 옷새 진다.

온화한 바람이 건 듯 불어 푸른 물을 건너 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
지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.

준중(樽中)이 뵈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(小童)
아히 다려 주가(酒家)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
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(微吟緩步)하야 시냇?의 호
자 안자

술동이가 뵈엿거든 나에게 말하여라. 심부름하는 아이 시켜 술집에서
술을 사가지고 어른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매고와서 시를 읊조리
며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

명사(明沙)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(淸流)를
굽어보니 저오노니 도화(桃花)로다 무릉(武陵)이 갓갓
도다 저 미이 낀 거인고

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두고 시냇물을 바라보니 떠오
는 것이 복숭아꽃이로다. 무릉도원이 가깝도다. 저 산이 무릉도원인
가(그 정도로 아름답다)

송간(松間) 세로(細路)에 두견화(杜鵑花)를 부치 들고
봉두(峰頭)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그 안자보니 천촌 만락
(千村萬落)이 곳곳이 버려 잇니 연하 일휘(煙霞日輝)는
금수(錦繡)를 재펄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
(有餘)할샤.

소나무 사이 가는 길로 진달래를 꺾어두고 산봉우리에 올라보니 많
은 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. 안개와 노을과 햇빛은 수놓은 비
단을 펼친 듯하구나. 엇그제까지 검던 들이 봄빛이 완연하구나.

功名(공명)도 날 썩우고, 富貴(부귀)도 날 썩으니, 淸風明
月 外(외)에 었던 벗이 잇소울고.

공명도 날 꺼리고, 부귀도 날 꺼려 따르지 않으니, 아름다운 자연
외에 어떤 친구가 있을 것인가?

簞瓢陋巷(단표누항)에 핫튼 혜음 아니 하니.

소박하고 간소한 생활을 하는 이 시골 살림에 번잡한 허튼 생각을
아니하네.

아모타, 百年行樂(백년 행락)이 이만흔들 엇지 허리.

아무렇든지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니 만족해 하지 않고
어찌하랴?

-정극인, 상춘곡(賞春曲)

2. 주제 : 봄의 완상, 안빈낙도

3. 표현

- 설의, 대구, 감정이입, 직유, 대조

- 말을 건네는 어조

- 색채감, 감각적 심상

4. 속세와 자연의 대비

홍진, 공명, 부귀 ↔ 자연 속의 만족감

5. 핫튼 혜음(헛된 생각)=속세의 부귀, 공명